

『상한론』 제 39조에 대한 문헌적 연구

김준기*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

A Documentary Study on Article 39 of Shanghanlun

June Ki Kim*

Departments of path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This paper deals with the documentary study on article 39 of Shanghanlun(傷寒論). It has been reported that symptom of Daqinglong-tang(大青龍湯) of article 39 of Shanghanlun is caused by the following four factors: 1) the additional evidence of article 38 2) the transformation into heat-syndrome of cold evil 3) the chronic and less acute process of Taiyangshanghan(太陽傷寒) 4) a kind of anasarca coming from an evil of wind-warm. After studying and comparing the above article with the article of Daqinglong-tang of Jinguiyaolue(金匱要略), I found that symptom of Daqinglong-tang of article 39 is anasarca.

Key words : Article 39 of Shanghanlun(傷寒論), Jinguiyaolue(金匱要略), Daqinglong-tang(大青龍湯), anasarca(溢飲).

서 론

『상한론』은 『내경』과 함께 한의학 최고의 고전으로 기초의 학 및 임상의학에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상한론』 자체의 난해함으로 인하여 교학(敎學) 양방면 및 임상적 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상한론』의 주석서가 송대이후 청대까지 540여 권 출간된 것은 『상한론』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한론』의 난해함을 반증하는 것 할 수 있다. 특히 본고의 주제가 되는 39조의 대청룡탕증은 역대 주가의 학설상에 많은 논란이 있고 아직까지 본조에 대한 정론이 없는 실정으로 학생들에 대한 강의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조문이다. 이에 논자는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논점을 정리하여 일부 지견을 얻었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본 론

1. 『상한론』의 제38조의 대청룡탕증¹⁾

본조의 병기와 처방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는 별다른 異論이 없으며, 『傷寒論精解』을 비롯한 대부분의 『상한론』 주해서에서 “脈浮緊, 發熱惡寒, 身疼痛, 不汗出”은 모두 마황탕의 병증이며, 마황탕과의 차이점은 “煩躁”에 있다고 보는데, 본조의 병기를 肌腠 表邪의 鬱閉가 비교적 심하고 내부에 울열이 있는 것으로 인

식하고 있다. 주치처방인 대청룡탕은 마황탕에서 마황의 용량을 倍增하여 체표의 울폐를 치료하고 석고를 가하여 울열을 청리하는데, 열이 經에만 울체되어 있고 胃燥津傷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으므로 생강과 대조로 補佐하여 益脾胃하게 하는데 석고로 인한 寒中の 폐단을 없애도록 한 것이다. 만약 병증에 적중되면 汗出로 인하여 번조의 병증이 없어지고 열이 물러나게 되어 諸症이 낮게 되는데, 약효가 신속하여 마치 용이 하늘에 올라가 비를 내리게 하는 것과 같으므로 방명을 대청룡탕이라고 한다고 하였다²⁾.

2. 상한론 제39조의 대청룡탕증³⁾

1) 문제의 제기

38조와 39조의 대청룡탕증에 있어서 38조의 “太陽中風, 脈浮緊”과 39조의 “太陽傷寒, 脈浮緩”은 마황탕과 계지탕의 맥상과 상반되고, 39조의 병증 또한 38조의 병증과 연계성이 부족하여 역대 의가 및 현대의 상한 연구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문등은 38조의 “發熱惡寒, 脈浮緊, 身疼痛, 不汗出而煩躁”는 대청룡탕의 전형적인 증후[正局]에 속하여 변증에 어려움이 없으나, 39조의 “脈浮緩, 身不疼, 但重, 乍有輕時” 대청룡탕증의 비전형적인 증후[變局]로 변증이 비교적 난해한 경우에 해당되지만, 소음음한증이 없으므로 대청룡탕을 사용하여 발표청리(發表清裏)

* 교신저자 : 김준기,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E-mail : graywolf@dongguk.ac.kr Tel : 054-770-2374
접수: 2001/11/08 · 수정: 2001/12/29 · 채택: 2002/02/05

1) 太陽中風, 脈浮緊, 發熱惡寒, 身疼痛, 不汗出而煩躁者, 大青龍湯主之. 若脈微弱, 汗出惡風者, 不可服之. 服之則厥逆, 筋惕肉瞤, 此爲逆也.
2) 文滄典 의 : 傷寒論精解, 서울, 慶熙大學校出版社, p.121, 2001.
3) 傷寒, 脈浮緩, 身不疼, 但重, 乍有輕時, 無少陰證者, 大青龍湯發之.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39조에서 “無少陰證”이라고 한 것은 38조에서 “若脈微弱，汗出惡風者，不可服之”라고 한 의미와 동일하며, 전후조문을 상호 참조하면 양조문의 의미가 명확해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본조의 요지는 醫者로 임상에서 知常達變하도록 하는데 있으나 비전형적인 증후일지라도 본래의 병기가 변하지 않은 것이라면 主方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⁴⁾. 그러나 “38조”의 “脈浮緊，發熱惡寒，身疼痛，不汗出而煩燥”와 “39조”의 “脈浮緩，身不疼，但重，乍有輕時，無少陰證”은 동일한 탕증에 대한 상변(常變)의 관점에서 해석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기존의 해석에 있어 39조 병증에 대한 구체적 병기가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 이에 논자는 역대 의가 및 현대 상한 연구가의 주요 학설을 정리하여 보고 하고자 한다.

2) 역대 주요 의가의 주석 분석

(1) 成無己의 『注解傷寒論』⁵⁾

此傷寒見風脈也。傷寒者身疼，此以風勝，故身不疼；中風者身重，此以兼風，故乍有輕時。不發厥吐利，無少陰裏證者，爲風寒外甚也。與大青龍湯，以發散表中風寒。

【譯】 본조는 상한증에 중풍의 맥이 나타난 것이다. 상한에는 몸이 아프지만 본증은 풍사가 강하기 때문에 몸이 아프지 않다. 또 풍사에 상하면 몸이 무거운데 여기서는 풍사를 겸한 것이기 때문에 때때로 가벼울 때가 있는 것이다. 팔다리가 싸늘해지고 토하며 설사하지 않아 소음리증이 없는 것은 풍한의 사기가 밖에서 왕성한 것이므로 대청룡탕으로 체표에 있는 풍한의 사기를 발산시켜야 한다.

【按】 “此傷寒見風脈也”，“風寒外甚”이라고 하여 본조의 병기를 상한과 상풍의 병증이 겸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으며, “發散表中風寒”이라고 하여 大青龍湯發之에서 “發之”를 “發散”의 의미로 강조하고 있다.

(2) 喻嘉言의 『尚論』⁶⁾

細玩二條文意，傷風脈本浮緩，反見浮緊，傷寒脈本浮緊，反見浮緩，是爲傷風見寒，傷寒見風，兩無疑矣。既無可疑，又當辨無少陰證相雜，則用青龍萬舉萬當矣。故脈見微弱，卽不可用大青龍湯，以少陰病脈必微細也。

【譯】 “28조, 39조 양조문의 뜻을 세밀히 살피면 傷風의 맥은 본래 浮緩한데 오히려 浮緊의 맥이 나타나고 傷寒의 맥은 본래 부건한데 오히려 浮緩의 맥이 나타나는 것은 상풍에 寒이 나타나고 상한에 風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두가지는 의심할 바가 없다. 이미 의심되는 바가 없고 少陰證의 相雜되어 나타나지 않았음을 판단할 수 있으면 대청룡탕을 쓰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러므로 微脈이 나타나면 大青龍湯을 쓸 수 없다고 한 것은 소음병의 맥이 반드시 微細하기 때문이다.

【按】 38조와 39조에 대하여 “傷風見寒，傷寒見風”이라고 하여 脈浮緩과 脈浮緊의 기전을 설명하였으며, 38조와 39조 모두 風寒兩傷의 병증이므로 소음증만 없다면 대청룡탕을 쓸 수 있다고 하였다.

(3) 魏荔彤의 『傷寒論本義』⁷⁾

今其人傷寒而脈則浮緩，寒證兼風脈矣。身不疼則重，乍有輕時，有寒邪挾風邪，斯不致涸其營血，而致身疼腰痛，骨節疼痛矣。脈證兩見兩傷，大青龍湯主之，與前條無二法也。獨見身重一證，必須辨明，但欲寐而常重，則屬少陰。誤發其汗，變上厥下竭者，少陰熱也。變筋傷肉瞶者，少陰寒也。其誤犯汗之忌，一也。

【譯】 지금 환자가 한에 상하였지만 맥이 부완한 것은 한증에 풍맥을 겸한 것이다. 몸이 아프지 않고 무거우면서 때때로 가벼울 때가 있는 것은 한사가 풍사를 겸하여 한사가 영혈을 凝滯하게 하여 ‘身疼腰痛·骨節疼痛’에 이르게 하지 않게 하였기 때문이다. 본조의 맥증에 풍한의 사기가 모두 나타나고 풍한에 모두 상하였으므로 대청룡탕으로 치료하는 것은 38조와 다름이 없다. ‘身重’이라는 병증은 반드시 명확하게 분별해야 한다. 잠만 자려고 할 때 몸이 무거운 것은 少陰病에 속한다. 발한을 잘못해서 ‘上厥下竭’로 변하는 것은 소음의 열증이고, ‘筋傷肉瞶’으로 변하는 것은 소음의 寒證이지만 발한시켜서는 안된다는 금기를 범한 것에는 마찬가지로이다.

【按】 본조의 병기는 風寒兩傷이므로 38조와 같이 대청룡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본조의 주증을 ‘身重’으로 보고 있다.

(4) 柯韻伯의 『傷寒來蘇集』⁸⁾

寒有輕重，傷之重者，脈陰陽俱緊而身疼，傷之輕者，脈浮緩而身重。亦有初時脈緊漸緩，初時身疼繼而不疼者，診者勿執一以拘也。本論云「傷寒三日，陽明脈大，少陽脈小，脈弦細者屬少陽，脈浮緩者係太陽」可以見傷寒無定脈也。然脈浮緊者身必疼，脈浮緩者身不疼，中風傷寒皆然，又可謂之定脈定證矣。脈浮緩下當有發熱惡寒無汗煩燥等證，蓋浮緩身不疼。見表證已輕，見但身重乍有輕時，見表證將罷，以無汗煩燥，故合用大青龍。無少陰證，仲景正爲不汗出而煩燥之證，因少陰亦有發熱惡寒無汗煩燥之證，與大青龍同法，當溫補。若反與麻黃之散·石膏之寒，眞陽立亡矣。必細審其所不用，然後不失其所當用也。前條是中風之重證，此條是傷寒之輕證。仲景只爲補少陰句，與上文煩燥互相發明，意不重在傷寒，蓋煩燥是陽邪，傷寒之輕者有之，重者必嘔逆矣。

【譯】 상한에 輕重이 있으니 重하게 상한 자는 음양의 맥이 모두 緊하며 몸이 아프고, 輕하게 상한 자는 맥이 浮緩하며 몸이 무겁다. 또한 처음에는 맥이 緊하다가 점차 緩해지고 처음에는 몸이 아프다가 나중에는 아프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진단함에 한 가지에 구애되어서는 안된다. 『상한론』 원문에서 “傷寒三日，陽明脈大⁹⁾，少陽脈小¹⁰⁾。” “脈弦細者，屬少陽¹¹⁾”，“脈浮緩係太陽¹²⁾”라고 하였으니 傷寒病에 ‘定脈’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맥이 浮緊한 사람은 몸이 반드시 아프고 맥이 浮緩한 사람은 몸이 아프지 않은 것은 中風과 傷寒 모두 그러하니 定脈·定證이라고

7) 魏荔彤：傷寒論本義，北京，中醫古籍出版社，p. 225, 1977.
 8) 柯韻伯：傷寒來蘇集，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pp. 39-40, 1986.
 9) 186조 “傷寒三日，陽明脈大。”
 10) 271조 “傷寒三日，少陽脈小者，欲已也。”
 11) 265조 “傷寒，脈弦細，頭痛發熱者，屬少陽。少陽不可發汗，發汗則譫語。此屬胃，胃和則愈，胃不和，煩而悸。”
 12) 278조 “傷寒脈浮而緩，手足自溫者，系在太陰，太陰當發身黃；若小便自利者，不能發黃，至七八日，雖暴煩下利日十餘行，必自止，以脾家實，腐穢當去故也。”

4) 文禮典 前掲書，p. 124
 5) 成無己：注解傷寒論，北京，人民衛生出版社，p. 70, 1996.
 6) 喻嘉言：喻嘉言醫學三書，南昌，江西人民出版社，pp. 78-9, 1984.

말할 수 있다. “脈浮緩” 아래에 반드시 “發熱·惡寒·無汗·煩躁” 등의 증상이 있어야 한다. 대개 脈浮緩·身不疼 등은 표증 역시 가볍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身重乍有輕時”는 표증이 장차 없어지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무한과 번조로 있어 대청룡탕을 合用하는 것이다. 소음증이 없다는 것은 중경이 “不汗出”과 “煩躁”에 대해 중경이 말한 것이다. 소음병에도 발열·오한·무한·번조 등의 증상이 있어서 대청룡탕과 같지만 반드시 溫補하여 치료해야 한다. 만약 반대로 발산하는 마황이나 차가운 석고를 주면 진양이 바로 없어질 것이다. 반드시 그 쓰지 못할 곳을 세심하게 살펴야 써야 할 곳에 실수하지 않게 된다. 앞조문은 中風의 重證이고 이 조문은 傷寒의 輕證이다. 중경이 단지 “無少陰”구절을 보충한 것은 위문장의 煩躁와 서로 發明하는 것이니 仲景의 뜻이 상한에 중점을 두지 않은 것이다. 대개 번조는 양사이므로 상한이 가벼운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심한 자는 반드시 구역하게 된다.

【按】傷寒無定脈이라 하여 38조 傷風의 脈浮緊과 39조 傷寒의 脈浮緩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39조의 主症에 38조의 “發熱·惡寒·無汗·煩躁” 등의 병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여, 조문 자체를 “傷寒, 脈浮緩, 發熱惡寒, 無汗煩躁, 身不疼, 但重, 乍有輕時, 無少陰證者, 大靑龍湯發之.”¹³⁾로 바꾸어 놓고, “前條是 中風之重證, 此條是 傷寒之輕證”라고 하였다.

(5) 吳謙의 『醫宗金鑑』¹⁴⁾

傷寒脈當浮緊, 今脈浮緩, 是傷寒之病, 而兼中風之脈也. 傷寒當身疼, 今身不疼, 是傷寒之病, 而兼中風之證也. 身輕邪在陽也, 身重邪在陰也. 乍有輕時, 謂身重而有時輕也. 若但欲寐身重無輕時, 是少陰證也. 今無但欲寐, 身雖重乍有輕時, 則非少陰證, 乃營衛兼病之太陽證也. 脈雖浮緩, 證則無汗, 屬實邪也, 故亦大靑龍湯發之. 前條以脈微弱汗出示禁, 此條以無少陰證發明, 蓋詳審慎重之至也.

【譯】상한의 맥이 浮緊해야 하는데 본증의 맥이 浮緩한 것은 상한의 병에 중풍의 맥을 겸한 것이다. 상한에 몸이 아파야 되는데 지금 몸이 아프지 않은 것은 상한의 병에 중풍의 증을 겸한 것이다. 몸이 가벼운 것은 사기가 양에 있는 것이고 몸이 무거운 것은 사기가 음에 있는 것이다. “때때로 가벼울 때가 있는 것”은 몸이 무거우나 때때로 가벼울 때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만약 단지 잠자려고만 하고 몸이 무겁지만 몸이 가벼운 때가 없으면 소음증이다. 이제 단지 잠만 자려고 하는 것이 없고 몸이 비록 무거우나 가벼운 때가 있는 것은 소음증이 아니고 영위가 함께 병이 든 태양증이다. 맥이 비록 浮緩하나 無汗의 병증으로 실사에 속하므로 본증 역시 대청룡탕으로 발산시켜야 할 것이다. 앞의 조문은 “脈微弱汗出”로써 금해야 할 것을 보인 것이고 이번 조문은 “無少陰證”으로 숨은 의미를 밝혔으니 병증을 신중히 살피고 치료를 신중하는 것이 지극함을 나타낸 것이다.

【按】“傷寒之病, 而兼中風之脈” “營衛兼病之太陽證”이라고 보았으며 맥이 浮緩하지만 병기상 寒傷榮으로 인한 無汗의 병증이 동반되어야 하므로 大靑龍湯으로 “發之”한다고 하였다.

(6) 陳修園의 『傷寒論淺注』¹⁵⁾

大靑龍湯爲少陰證之大禁. 苟無少陰證者, 不特中風之重者用之, 則傷寒之輕者亦可用. 傷寒脈不浮緊而浮緩, 身不覺其疼而但覺其重, 而且重不常重, 亦乍有輕之時, 似可以無用大龍之大劑矣. 然不汗出而煩燥, 爲大靑龍之的證, 苟非大發其汗, 則內熱無可宣洩, 其煩燥亦何自而安乎? 醫者必審其不汗出非少陰之但厥無汗, 煩燥非少陰水火之氣相雜, 審證既確, 亦可以自信而直斷之曰: 此無少陰證者, 以大靑龍湯發之.

此一節言傷寒之輕證, 亦有用大靑龍法, 點出「無少陰證者」五字, 以補上節之大主腦也. “者”字承上節不汗出而煩燥言. 上節云「主之」以內外之熱交盛, 此方主其中而分解之, 此節云「發之」者, 外邪雖開, 而內之煩燥未甚, 但發其外而內自解也.

【譯】대청룡탕은 소음증에 크게 금하는 처방이다. 만약 소음 증만 없다면 중풍의 重證에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한의 輕證에도 사용할 수 있다. 상한의 맥이 浮緊하지 않고 浮緩하며 몸이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고 단지 몸이 무겁게만 느껴지는데 항상 무거운 것도 아니고 가벼운 때가 있다면 대청룡탕이라는 大劑를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不汗出而煩燥”하는 것은 대청룡탕의 的證이 된다. 만약 크게 발한시키지 않으면 內熱이 빠져 나갈 수 없으니 煩燥 또한 어떻게 안정될 수 있겠는가? 醫者가 본증의 “不汗出”이 少陰病의 “但厥無汗”이 아니고, “煩燥”가 少陰水火의 氣가 相雜한 것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변증할 수 있으면 자신감을 가지고 명확하게 “無少陰證者, 大靑龍湯發之”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본조는 傷寒의 輕證에도 大靑龍湯을 사용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니 “無少陰證者”의 다섯 글자를 드러내어 38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보완한 것이다. “無少陰證者”라고 할 때의 “者”字는 38조의 “不汗出而煩燥”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전조에서 “主之”라고 한 것은 內外의 熱이 모두 강성하므로 본방으로 治中을 위주로 하여 내외의 열을 각기 나누어 치료하는 것이고, 본조에서 “發之”라고 한 것은 外邪가 체표에 윤택되어 있지만 체내의 번조가 심하지 않은 것이므로 체표를 발산시켜 내증이 저절로 풀리게 하려는 것이다.

【按】“傷寒, 脈浮緩”을 상한의 경증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發之’에 대하여 “外邪가 체표에 윤택되어 있지만 체내의 번조가 심하지 않은 것이므로 체표를 발산시켜 내증이 저절로 풀리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여 본조의 주증에 煩躁를 포함시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7) 尤怡의 『傷寒貫珠集』¹⁶⁾

傷寒脈浮緩者, 脈緊去而成緩, 爲寒欲變熱之證, 『經』曰: 脈緩者多熱是也. 傷寒邪在表則身疼, 邪入裏則身重, 寒已變熱而脈緩, 經脈不爲拘急, 故身不疼而但重, 而其脈猶浮, 則邪氣在或進或退之時, 故身體有乍重乍輕之候也. 是以欲發其表, 則經已有熱, 欲清其熱, 則表猶不解, 而大靑龍湯, 兼擅發表解熱之長, 苟無少陰汗出厥逆等證者, 則必以此法爲良矣. 不云主之而云發之者, 謂邪欲入裏,

13) 柯韻伯 前揭書 p. 39

14) 吳謙 : 醫宗金鑑(傷寒論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101, 1990.

15) 陳修園 : 傷寒論淺注, 福建, 福建科學技術出版社, p. 23, 1987.

16) 尤怡 : 尤在涇醫學全書(傷寒貫珠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p. 18, 1999.

以藥發之，使從表出也。舊註謂傷寒見風，故并用麻黃者，非。

【譯】상한에 맥이 부완한 것은 상한의 긴맥이 없어지고 완맥으로 된 것이니 한사가 열사로 바뀌려는 병증이다. 『內經』에서 “脈緩者多熱”이라고 한 것이 이러한 의미를 나타낸다. 상한의 사기가 체표에 있으면 “身疼”하지만 사기가 入裏하면 “身重”하게 된다. 한사가 이미 열로 바뀌었으므로 脈緩하게 되고 經脈이 拘急되지 않으므로 “身不疼而但重”하게 되는데, 맥이 여전히 浮하여 사기가 “或進或退”의 상태에 있으므로 “乍重乍輕”의 증후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發表하고자 하나 이미 內熱이 있고, 清熱하고자 하나 아직 표증이 不解하였으므로 대청룡탕으로 “發表解熱”의 특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 소음의 汗出·厥逆 등의 병증이 없다면 반드시 이러한 방법을 써야 할 것이다. “主之”라고 하지 않고 “發之”라고 한 것은 사기가 入裏하려 하므로 대청룡탕으로 “發散”시켜 사기가 체표를 통하여 빠져 나가도록 하려는 것이다. 舊註에서 상한에 상풍이 곁한 것이므로 마황을 사용하였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按】다른 의가와 달리 脈浮緩에 대하여 脈浮은 아직 표증이 남아 있는 것이고 脈緩은 “寒欲變熱之證”이라 하여 기존의 “傷寒見風，傷風見寒”說과 달리 해석하고 있으며, “身不疼，但重乍有輕時”에 대해서도 다른 의가와 달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8) 張志聰의 『傷寒論注』¹⁷⁾

此言寒傷太陽而內干太陰之氣化也。傷寒脈浮緩者，邪在太陽則浮，入于太陰則緩。「太陰篇」云：傷寒脈浮緩，手足自溫者，係在太陰。身不疼者，邪正之氣并陷于內而不在肌膚者；身重者，一身乃太陰坤土之所主，邪薄之而氣機不利也；上節不汗出而煩躁，乃少陰之證，此身不疼而但重，乃太陰之證，故曰無少陰證者，大青龍湯發之。入于坤土之內，故曰發，猶用越脾之發越其病機也。凌氏曰：此湯與越脾湯大略同，蓋脾主地而主太陰也。

【譯】본조는 한사가 태양을 상하게 하고 안으로 태음의 기화에 영향을 준 것이다. 상한의 맥이 부완한 것은 사기가 태양에 있어 “浮”하고 태음으로 들어가 “緩”한 것이다. 『태음편』에서 “傷寒脈浮緩，手足自溫者，係在太陰。”이라고 하였다. “身不疼”은 사기와 정기가 모두 내함하여 肌膚에 있지 않은 것이고, “身重”은 太陰坤土가 주관하는 一身에 사기가 침범하여 기기가 불리하기 때문이다. 전조에서 “不汗出而煩躁”는 소음의 병증이고, 본조의 “身不疼而但重”은 태음의 병증이다. 그러므로 “無少陰證者，大青龍湯發之”이라고 하였다. 체내의 坤土로 들어갔으므로 “發”한다고 하였는데, 율비탕이 해당 병증의 병기에서 發越시킨다고 하는 것과 같다. 凌氏는 “본방과 율비탕이 기본적으로 같은 처방이다.”고 하였는데 비가 太陰濕土를 주관하기 때문이다.

【按】“邪在太陽則浮，入于太陰則緩”라 하였으며, “身不疼，但重”을 太陰濕土의 병으로 보았다.

(9) 陸淵雷의 『傷寒論今釋』¹⁸⁾

發熱惡寒，不汗出而煩躁口渴者，大青龍湯之主證也。身疼非必見之證，因汗不出熱不減所致，與麻黃證同理，麻黃證亦有身不疼者

矣。雖不疼而重，且有發熱惡寒，不汗出煩躁口渴，則主證已具，仍是大青龍所主。然身重疑於少陰陽明之一身盡重，難轉側，故別之曰乍有輕時；又疑於少陰證之四肢沈重，故別之曰無少陰證，所以示辨析疑似之法也。論中多有但言副證，不言主證者，蓋一方必具一方之主證，舉方名則主證可知，故可不言，言副證以辨析疑似而已。

【譯】“發熱惡寒，不汗出，煩躁，口渴”이 대청룡탕의 주증이며, 身疼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병증이 아니며 嘔이 나지 않아 열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마황탕등과 같은 이치인데 마황탕증에도 신통이 없다. 비록 몸은 아프지 않으나 무겁고 발 열오한이 있으며 嘔이 나지 않고 번조구갈이 있으면 주증은 이미 구비된 것이며 역시 대청룡탕의 적응증이다. 그러나 身重은 소양·양명증에서의 ‘온몸이 무거워 돌아눕지 못하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으므로 이곳과 구별하기 위해 ‘때때로 잠깐 가볍기도 하다’라고 하였다. 또한 소음증의 사지침중으로 의심할 수 있으므로 이것과 구별하기 위해 ‘무소음증’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의심스러운 비슷한 증과의 감별법이다. 논증에서 대부분 부증을 말하고 주증을 말하지 않은 것은 대체로 한 처방이면 꼭 그 주증이 구비되어 있으므로 처방명을 들면 주증은 자연히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증을 말하지 않고 부증을 들어 비슷하면서 의심스러운 증과 구별하였다.

【按】“傷風見寒，傷寒見風說”에 입각하여 설명하고, 38조의 병증을 대청룡탕의 주증으로 보고 39조의 병증을 부증으로 보고 있으나 39조 병증의 구체적인 병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3) 현재의 통설에 대한 분석

현재 통용되고 대부분의 상한론 교재는 앞에서 언급한 『상한론정해』의 이해 방식과 유사하다. 다시 말하여 39조는 38조의 副證이며, 常變에서 變局에 속하며, 38조의 주증인 “發熱惡寒，不汗出而煩躁”가 반드시 포함되고 소음증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대청룡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崔도 38조와 39조는 연계시켜 互文과 省筆의 文章으로 理解함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즉 38條의 “脈浮緊，身疼痛”과 39條의 “脈浮緩，身不疼，但重，乍有輕時”의 證候群을 중심으로 관찰하면, 大青龍湯의 主證인 “發熱惡寒，不汗出而煩躁”의 전제하에 병증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互文과 省筆의 문장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대청룡탕증에 있어 “發熱惡寒，不汗出而煩躁”는 主證이 되면서 38條의 “脈浮緊，身疼痛”은 “言其常”을, 39條의 “脈浮緩，身不疼，但重乍有輕時”는 “言其變”을 表現하고 있다고 하였다¹⁹⁾. 형(邢)도 “太陽中風，脈浮緩，身不痛，但覺重의 39조의 병증에서 身重은 결코 항상 나타나는 병증이 아니며 ‘發熱，惡寒無汗，煩躁’의 증상이 38조와 같이 여전히 나타나야 한다. 맥부완이 대청룡탕증을 사용할 수 없는 병증처럼 보이지만 다른 병증이 다 갖추어지고 맥상에 鬱熱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捨脈從證의 원칙에 따라 대청룡탕을 쓰야 한다고 하였으며, 紅燥少津의 舌診과 煩躁口渴，大便燥實의 병증이 동반되어야 한다.”²⁰⁾고 하였다. 그리고, 『상한론

17) 張志聰：張志聰醫學全書(傷寒論集注)，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pp. 635-6, 1999.
18) 江蘇省中醫大學 傷寒論研究室 編(民族醫學研究所 古典研究室 譯)：傷寒論釋義，서울，麗江出版社，pp. 93-4에서 在引用，2001.

19) 崔達永 외：상한론석감，서울，대성문화사，1999，p. 78
20) 邢錫派：傷寒論臨床實驗錄，天津，天津科學技術出版社，pp. 64-5, 1984.

강의』에서도 “풍한으로 인한 표실증에 裏熱을 곁하고 여기에 번조도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에서 이 증은 열이 나고 오한이 나며 땀이 나지 않고 번조하는 증상이 반드시 나타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풍한에 외감된 증은 경증에서 다른데 만약 사기에 비교적 중하게 외감되고 정사의 투쟁이 비교적 격렬하다면 맥은 긴하고 뭉은 동통하게 된다. 이 증은 사기에 외감된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맥이 완하고 뭉은 동통하지 않으며 오직 무겁기만 하고 잠깐 가벼워질 때가 있기 때문에 맥상이나 뭉은 동통이 모두 전형적인 것이 못된다. 그러나 증의 기본적인 특징은 구비하고 있다. 이외에 소음병이 없다고 하여 裏虛로 인한 寒證의 존재나 그 가능성을 부정하였다. 표실에 리열증을 곁한 것으로 변증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므로 여전히 대청룡탕을 투여하고 발한하고 해표하며 청열한다.”고 하였다²¹⁾. 王道 임상에서 증에 “輕重”이 있고 병에 “常變”이 있는데 38조가 대청룡탕증의 “常”에 대해서 말했다면 본조는 “變”에 대해서 말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양조를 합참하면 “發熱惡寒, 不汗出而煩躁”의 병증이 진단상의 요점이 되며, 이러한 병증을 나타내지 않으면 대청룡탕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소음병에도 四肢沈重의 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나 身重蹇臥의 병증에 있어 “無有輕時”하며 “下利厥逆, 脈微細” 등의 병증이 동반되어 본조의 병증과 구별되므로 조문상에서 “乍有輕時, 無少陰證者”라고 하였다고 한다²²⁾. 이러한 38조의 이해방법은 앞에서 언급한 주요의가의 해석방식과 대체로 동일한 맥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운데는 『傷寒來蘇集』에서 “脈浮緩” 아래에 “發熱惡寒煩躁” 등의 증상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조문 자체를 수정하였음을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4) 통설에 대한 반론

(1) 錯簡說

徐大椿은 『傷寒論類方』²³⁾에서 “본조에는 반드시 잘못된 점이 있을 것이다. ‘脈浮緩’은 사기가 약하여 쉽게 흩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身不疼’은 외사가 이미 물러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乍有輕時’는 사기가 아직 陰分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을 나타내고 또 특별히 ‘少陰證’이라고 할만한 병증이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병증중에서 가장 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찌 청룡탕과 같은 준제를 반드시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이것은 반드시 다른 주방이 있을 것인데 대청룡탕으로 치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하여 본조의 주방이 대청룡탕이 되는 것에 대하여 강한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程應旂는 『傷寒論後條辨·卷六』에서 “通用本[坊本]에서 모두 대청룡탕이라고 하였지만 내가 어려서부터 읽었던 고본에는 소청룡탕으로 되어 있다. 조문중의 맥증을 보면 대청룡탕의 병증이 아니다.”²⁴⁾라고 하

였으며 본조의 주방이 소청룡탕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丹波元簡은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따를 수 없다. 程氏가 말하는 고본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고 아마도 자신을 주장을 의탁하기 위한 말일 것이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²⁵⁾.

(2) 39조 대청룡탕증 重證說

그러나 일부의 주석가는 39조의 대청룡탕증이 38조의 대청룡탕증에 비하여 副證이라는 일반적 통설과 달리 39조를 38조에 비하여 증증의 병증으로 인식하고 있다. 39조의 병기에 대하여 李는 太陽傷寒에서 “脈浮緊, 身疼痛”의 주증이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이지만 表邪가 不解하여 膚表腠理의 폐쇄와 긴장이 지속되면 오히려 “緊極則緩, 閉極則弛”하게 되므로 浮緊한 맥이 점차 浮緩하게 되고, 身疼痛의 병증이 점차 身重의 병증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러한 병기는 營衛의 滯滯와 不通이 더욱 가중된 것으로 太陽傷寒의 變證으로 볼 수 있으며, 다시 말하여 39조는 太陽傷寒重證의 慢性過程이나 亞急性過程으로 “形輕而實重, 症輕而病重”의 특수한 경우를 반영한다고 하였다²⁶⁾. 그리고 姜 등은 『靈樞·百病始生篇』의 “其痛之時息, 大經乃代”을 인용하여 사기가 小絡에서 大經으로 들어가면 身痛이 오히려 그치게 된다는 구절을 인용하여 본조에서 대청룡탕의 중증이지만 외견상 경증처럼 보이는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內經』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寒邪閉鬱의 병증은 음증과 극히 유사한 특수한 상태가 되어 임상상 감별하기가 곤란하므로 원문에서 변증상의 지표를 두가지 제시하였는데, 즉 “身重乍有輕時”와 “無少陰證”으로서 전자는 邪鬱氣滯로 인한 身重은 天陽의 盛衰에 따라 병증의 경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下利와 厥逆 등의 少陰病證이 동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脈緩身重”의 표증은 사기가 울체된 정도가 극히 심하여 병증이 완고하여 사기를 몰아내기가 극히 어려우므로 대청룡탕과 같은 투발력이 강한 처방이 아니라면 표사를 제거하기가 극히 어려우므로 원문에서 “發之”라고 하였다고 한다²⁷⁾. 다시 말하여 38조에서는 大靑龍湯“主之”라고 하고 39조에서 大靑龍湯“發之”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 주병증인 번조에 대하여 본조의 주병증인 “身不疼, 但重”에 있어서는 “發之”의 처방이 아니면 병증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은 方有執이 『傷寒論條辨』에서 “均是龍也, 而一則曰主之, 一則曰發之, 何也? 主之者, 而煩躁之急疾屬動而言; 發之者, 而但重之沈默屬靜而言之也.”²⁸⁾이라고 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 속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언급은 39조에서 반드시 소음증과 상호 감별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과 연계하여 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음병은 “脈微細, 但欲寐”를 의미하는 것으로 “沈默”과 “靜”의 구체적 정도를 알 수 있으며, 38조의 맥증에서 증풍이라

21) 傷寒論研究會 主編：傷寒論講義, 서울, 정담, p. 128, 1997.

22) 王琦：傷寒論講解, 新鄉, 河南科學技術出版社, p. 63, 1988.

23) 徐大椿：徐大椿醫書全集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246, 1988.

“按此條必有誤, 脈浮緩邪輕易散, 身不疼外邪已退, 乍有輕時, 病未入陰, 又別無少陰等證, 此病之最輕者, 何必投而靑龍險峻之劑, 此必另有主方, 而誤以靑龍當之者也.”

24) 李心機：傷寒論疑難解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154에서 재인용, 2000.

“坊本俱作大靑龍, 余幼讀古本實是小靑龍, 觀條中脈證, 總非大靑龍病. 宜世人有傷風見寒之說, 近并得友人張瑞玉一打其訛, 喜其先得我心, 不止孫吳之暗合也.”

25) 丹波元簡：聿修堂醫書選(傷寒論輯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56, 1983.

26) 李心機 前揭書 p. 158

27) 姜建國, 李樹沛：傷寒析疑, 북경, 科學技術出版社, p. 91, 1999.

28) 方有執：傷寒論條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63, 1957.

명명하고, 39조의 맥증에서 상한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39조의 맥증에 변조와 같은 동적 증상이 전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증경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무언중에 강조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風濕外溢의 溢飲證說

이상의 화설과 달리 본조의 병기를 “風濕外淫”으로 인한 병증으로 본 의가들이 있다. 췌는 39조의 대청룡탕증이 38조의 부증이 아닌 새로운 병증 즉 “體表에 外邪가 있고 體內에 裏熱이 있으며 表邪의 鬱閉로 인하여 水濕의 사기가 체표에 울폐된 병증”으로 보았다²⁹⁾. 그는 39조의 冒頭에 있는 “傷寒脈浮緩”에 대하여 傷寒은 中風과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고 광의의 상한 즉 외감병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즉 浮脈은 主表하여 病邪와 病位가 體表에 있음을 나타내고, 緩脈은 主濕과 主水氣를 나타내므로 본조의 기본 병기가 “浮緩의 相合” 즉 水濕의 사기가 體表에 閉鬱한 병증이라고 하였다. 『상한론』 제187조에서 “傷寒脈浮而緩, 手足自溫者, 是爲系在太陰. 太陰者, 身當發黃, 若小便自利者, 不能發黃. 至七八日, 大便硬者, 爲陽明病也.”이라고 하였으며, 『金匱要略·黃疸病脈證并治第十五』에서 “寸口脈浮而緩, 浮則爲風, 緩則爲痺, 痺非中風. 四肢苦煩, 脾色必黃, 痰熱以行.(一)”이라고 한 것에서 보듯이 脈浮緩은 太陽中風의 脈象이 아닌 風濕의 邪氣가 體表에 鬱阻한 것을 나타낸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장지충이 본증을 太陰濕土의 병증으로 본 것과 유사하다. 그리고 三焦는 水道이고, 膀胱은 水府로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는 腠理·皮毛가 膀胱과 三焦의 氣化로 敷布되는 津氣의 濡養을 받게 되는데³⁰⁾, 外邪가 肌表에 침입하여 表氣가 閉鬱하고 腠理가 不開하여 玄府가 不通하게 되면 體表로 布敷되는 津氣가 凝聚하여 水濕의 邪氣가 되고 肌膜과 皮膚에 鬱閉하게 되므로 “身不疼, 但重”의 병증이 나타난다고 하였고, “但重”은 煩躁가 38조의 주병증인 것과 같이 39조의 주요 증상이 되며, 水濕의 사기가 체표에 閉鬱되어 있으므로 沈重하게 느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水濕의 사기가 初結하여 閉鬱의 病勢가 아직 輕淺하며 아직 완전한 水腫을 형성하지 못하였으므로 몸이 비록 沈重하나 “乍有輕時”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體表에 있는 邪氣가 閉鬱하여 水濕이 凝聚한 병증이지 결코 陰寒性의 水腫은 아니므로 仲景이 조문 중에서 “無少陰證”이라 하였으며 本條 辨證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며, 기타 의가들이 “脈微弱”이나 “發熱惡寒, 無汗煩躁” 등과의 감별을 위한 변증 지표라는 주장과 많은 차이가 있다. 병사와 병위가 모두 체표에 있으므로 “其在皮者, 汗以發之”의 치료원칙에 따라서 發散·發越·發汗의 처방을 사용해야 하므로 仲景은 “大靑龍湯發之”라 한 것이다. 仲景은 『상한론』이나 『금계요략』에서 “...湯主之” 혹은 “可與...湯” 혹은 “宜...湯”이라 하였는데, 오직 本條에서만 “發之”란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發之”에 대하여 “發汗”의 의미에 불과하며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한 주장도 있지만³¹⁾, “發之”라는 二字는 대청룡탕의 주치작용이 체표에 있는 사기를 發散·發越·發汗

시키는 특징이 있음을 의도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金匱要略』의 「痰飲咳嗽病脈證并治第十二」에서 “飲水流行, 歸于四肢, 當汗出而不汗出, 身體疼重, 謂之溢飲(二)”라 하였고, “病溢飲者, 當發其汗, 大靑龍湯主之(二十三)”라 하였는데, 양조의 내용을 종합하면 『상한론』 39조의 주요 병증과 기본적으로 동일함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仲景이 大靑龍湯으로 체표에 있는 水濕의 飲邪를 發越시켜 치료한다는 것을 명확히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李道 대청룡탕에 대하여 “不汗出而煩躁”의 “表寒內熱證” 외에도 “陽氣被鬱, 不得發熱, 而且行于肌表水液凝滯不流(陽鬱水滯), 症見脈由緊變緩, 并出現周身沈重或兼見疼痛, 或四肢酸沈, 難于擡舉, 或四肢關節腫痛等”의 溢飲證을 치료한다고 하였으며, 水邪를 發泄하기 위하여 발한의 처방을 사용하므로 大靑龍湯 “發之”라고 하였다³²⁾.

5) 총괄

본조의 병기에 대하여 39조가 38조의 變局으로서 대청룡탕 증 증의 輕證이라는 기존의 통설은 단순히 常變의 논리에서 설명하였을 뿐 병증 발현의 병기에 대하여 구체적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38조의 주증인 “發熱惡寒, 無汗煩躁”를 필수 병증으로 제시하여 본조가 가지는 변증상의 의의를 회피한다고 볼 수 있으며, 착간설은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모두 배제된 상황에서 최후로 선택할 수 있는 화설이라고 생각된다. 본조에 대한 이해에 있어 문 등은 앞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통설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나 同書의 [按]에서는 “맥이 浮緩한데 不汗出而煩躁가 있으면 이때의 煩躁는 假象이므로 대청룡탕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저자 자신도 본조의 병기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³⁾.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한론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최근 발간된 『상한론사전』은 대청룡탕증에 대한 항목에서 “寒欲變熱之證”과 “溢飲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³⁴⁾, 身重의 항목에서는 “風濕外溢說”로 해석하고 있으며³⁵⁾, 脈浮緩의 항목에서는 寒欲變熱說로 해석하여 寒欲變熱과 風濕外溢說을 모두 수용하여 항목간에 완전히 통일된 화설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³⁶⁾. 역대 의가 중에서 尤在涇은 脈浮緩에 대하여 “寒欲變熱之證”이라고 하여 기존의 傷寒兼風

32) 李文瑞：傷寒論湯證論治，北京，人民衛生出版社，pp.169-170, 1999.

33) 文禮典 外 前掲書 p.124

34) 傅延齡：傷寒論研究大辭典，濟南，山東科學技術出版社，p.538, 1994. 本證의 另一變局은 脈不浮緊而浮緩, 身不疼, 但重, 乍有輕時, 無少陰證. 尤怡認爲是寒欲變熱之證. 『金匱要略』又提出, 飲水流行, 歸于四肢, 當汗出而不汗出, 身體疼重, 謂之溢飲. 此爲水飲之邪溢于肌表四肢, 鬱遏榮衛之氣所致. 因飲爲陰邪, 飲停體表, 當發其汗, 故溢飲一證, 亦可歸于本湯證範圍. 大靑龍湯是治療上述病證的主方. 成無己·方有執等認爲, 桂枝湯證爲風傷衛, 麻黃湯證爲寒傷營, 大靑龍湯證의 病機是風寒兩傷榮衛, 達就是著名的“三綱鼎立”之說.

35) 此外水飲停聚, 外溢于肌膚, 加之風寒鬱表, 亦可以見身重. 如“傷寒, 脈浮緩, 身不疼, 但重”(第39條),

36) 脈象名, 指脈搏柔弱怠緩, 輕取即得, 亦作“脈浮而緩”, 吾見『傷寒論』第39條: “傷寒脈浮緩, 身不疼, 但重, 乍有輕時, 無少陰證者, 大靑龍湯發之.” 大靑龍湯證乃表有風寒, 內有鬱熱之證. 此浮爲表邪未罷, 風寒外來所致, 緩乃由浮緊而漸變爲緩, 系風寒化熱之象. 尤在涇云: “傷寒脈浮緩者, 脈緊去而成緩, 爲寒欲變熱之證. 經曰, 脈緩者多熱是也.”(『傷寒貫珠集』) 此說平正公允, 較他注爲優.

29) 婁水清：傷寒論臨床應用五十論，北京，學苑出版社，pp.66-8, 1995.

30) 『靈樞·本藏篇』“三焦膀胱者，腠理毫毛其應也”

31) 蔡仁植：傷寒論譯註，서울，高文社，p.47, 1995.

說과 다르게 병기를 설명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앞에서 인용한 『상한론사전』에서도 “此說平正公允，較他注爲優”라 하였으며, “身不疼但重，乍有輕時”에 대해서도 “傷寒邪在表則身疼，邪入裏則身重，寒已變熱而脈緩，經脈不爲拘急，故身不疼而但重，而其脈猶浮，則邪氣在或進或退之時，故身體有乍重乍輕之候也.”라 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李는 본조에서 “無少陰證”이라고 한 것은 본증과 소음증에 있어 서로 비슷한 병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소음증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대청룡탕으로 發之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無少陰證”의 四字는 병증 감별상의 관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만약 본증이 표증이 분명하며 소음증과는 전혀 상관없는 병증이라는 것을 감별할 필요조차 없이 명백하다면 “無少陰證”이라는 4자의 구절은 굳더더기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³⁷⁾. “無少陰證”이라고 할 때의 소음증에 대하여 尤在涇은 “少陰汗出厥逆證”이라 하고, 重證說의 姜建國 등은 “少陰下利厥逆證”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해석방식은 39조의 대청룡탕의 감별증상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喪는 상한론 조문 배열에 있어 第38條의 外寒兼裏熱의 大靑龍湯證을 論述한 후에 第39條에서 外寒裏熱兼表有水濕之邪이라는 大靑龍湯證의 또 하나의 主證을 論述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第40條에서 論한 外寒과 裏飲의 兼證인 小靑龍湯證에 대한 연결적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하여 大靑龍湯證이 “外有表寒而內兼裏熱”의 병증이라면 소청룡탕증은 “外有表寒而內兼裏飲”이 되고, 大靑龍湯證이 “外寒而致水濕蓄于表”의 병증이라면 소청룡탕증은 “外寒而致水飲停于裏”의 병증으로서 大·小靑龍湯證에 있어 각기 同中有異의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상한론』에서 자주 나타나는 중경의 필법이며, 제38조와 제39조의 大靑龍湯證은 異病同治의 범례에 속하며 절대 동일한 證候의 輕重에 따른 구분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상한론』의 조문 배열의 의의를 천발한 설명 방식이며³⁸⁾, 앞에서 열거한 39조 대청룡탕증에 있어 가장 타당한 설명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傷寒論』 제39조의 大靑龍湯證에 대하여 38조의 副證, 寒欲變熱證, 太陽傷寒 重證의 慢性過程이나 亞急性過程, 風濕의 邪氣

가 체포에 있어 발생한 溢飲證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金匱要略』의 大靑龍湯 條文과 연계하여 溢飲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동국대학교 논문게재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참고문헌

1. 柯韻伯 : 傷寒來蘇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2. 姜建國, 李樹沛 : 傷寒析疑, 北경, 科學技術出版社, 1999.
3. 江蘇省中醫大學 傷寒論研究室 編(民族醫學研究所 古典研究室 譯) : 傷寒論釋義, 서울, 麗江出版社, 2001.
4. 丹波元簡 : 聿修堂醫書選(傷寒論輯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5. 文椿典 외 : 傷寒論精解, 서울, 慶熙大學校出版社, 2001.
6. 方有執 : 傷寒論條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7.
7. 裴永清 : 傷寒論臨床應用五十論, 北京, 學苑出版社, 1995.
8. 傅延齡 : 傷寒論研究大辭典, 濟南, 山東科學技術出版社, 1994.
9. 傷寒論研究會 主編 : 傷寒論講義, 서울, 정담, 1997.
10. 徐大椿 : 徐大椿醫書全集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11. 成無己 : 注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12. 吳謙 : 醫宗金鑑(傷寒論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13. 王琦 : 傷寒論講解, 新鄉,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8.
14. 尤怡 : 尤在涇醫學全書(傷寒貫珠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5. 魏荔彤 : 傷寒論本義,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77.
16. 喻嘉言 : 喻嘉言醫學三書, 南昌, 江西人民出版社, 1984.
17. 李文瑞 : 傷寒論湯證論治,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9.
18. 李心機 : 傷寒論疑難解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19. 張志聰 : 張志聰醫學全書(傷寒論集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20. 陳修園 : 傷寒論淺注, 福建, 福建科學技術出版社, 1987.
21. 蔡仁植 : 傷寒論譯註, 서울, 高文社, 1995.
22. 崔達永 외 : 상한론석감, 서울, 대성문화사, 1999.
23. 邢錫派 : 傷寒論臨床實驗錄,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4.

37) 李文瑞 前掲書 p.173

38) 裴永清 前掲書 p.68